



Market Index / 11일

코스피지수 ▲

2927.38

코스닥지수 ▼

969.92

유가(WTI, 달러) ▼

78.23

환율(원)

1USD

1216.93

1175.07

1EUR

1382.77

1328.81

1CNY

196.83

178.09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가입자 ‘화들짝’

올해 1·2세대 보험료 16% 인상… 3년 갱신시 50% 안팎 ↑
“보험사의 손해를 책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
4세대 보험 갈아타면 1년간 50% 할인…유불리 잘 따져야

2010년 2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해 3년주기로 보험료 갱신을 앞둔 50대 A씨는 최근 보험사의 갱신 안내장을 받고 크게 놀랐다. 월 보험금이 현재 8만1000원에서 12만1000원으로 대폭 뛰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확인했더니 “실손보험료는 손해율과 의료수가 변동 등에 따라 연간 최대 25%까지 오를 수 있다”며 “갱신주기가 3년 이어서 3년동안의 누적된 인상분이 갱신때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는 16% 인상됐다. 3세대 보험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했던 한시적인 할인혜택(8.9% 수준)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50대 이상 연령대의 보험료 폭탄이 현실이 되며 가입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밝히는 1~3세대 실손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원인은 손해율 급등이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3496만명) 중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2.4%, 연 1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2.2%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아 가는 일부 가입자로 인한 보험사의 적자를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해 보험료만 크게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해 이종으로 보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와 보장범위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2009

년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세대보다 보험료가 75%정도 저렴하고, 2세대보다 60%, 3세대보다는 20% 싸다. 대신 자기부담비율이 20~30%로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제로 비싼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된다.

또 갱신주기가 1년인 3·4세대 보험과 달리 1세대는 1~5년, 2세대는 1~3년이어서 갱신주기 3년 이상 가입자는 갱신 때 인상 보험료가 한꺼번에 반영돼 많게는 100% 가까이 오를 수도 있어 체감 인상폭은 더 크다. 게다가 가입자 연령이 높

을수록 인상요인이 높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올해 6월까지 4세대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적고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는 건강한 젊은층은 4세대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볼만 하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거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고 비급여진료를 계속 이용하는 가입자라면 1~3세대 보험유지가 유리할 수 있어 갈아타기는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미숙기자

“기준금리 이번엔 얼마나 인상될까”
대출자들 14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 ‘촉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4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며 다중채무자나 20~30대 금융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6%까지 올랐고,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변동 주기가 통상 6개월인데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변동금리도 더 상승할 수 있어서다.

금통위가 이번에 1.0%인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1.25%)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발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꺼번에 0.5%포인트(p) 낮췄고, 같은 해 5월에는 0.50%로 추가 인하했다. 1년 3개월간 이어지던 최저금리는 낮은 금리와 주식시장 호황국면을 맞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집값 급등에다 물가상승 압력까지 커지면서 2021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p 인상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를 타고 속속 선반영된 상태다. 은행연합회가 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1월 중 취급한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해 12월 공시한 주택담보대출(보통상환 방식) 금리는 3.38~3.82%로 1년 전(2.74~2.85%) 대비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가팔랐다. 5대 시중은행에서 11월 취급된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89~6.0%로 1년 전(2.37~3.14%)에 견줘 1.52~2.86%p 급등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 대출금리 상승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역의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조5375억원으로 전월 대비 941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기타가계대출 잔액은 12조1950억원으로 전월보다 1209억원 감소하며 2012년 4월(-1577억원) 이후 9년 6개월만에 최대 감소액을 기록해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금리인상 영향이 반영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BTS 지민이 다녀간 곳입니다”

제주관광공사, 내달 6일까지 포토존 인증 이벤트

제주관광공사는 비짓제주(www.visitjeju.net)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BTS 지민 포토존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BTS 지민이 개인 SNS 채널에 제주여행 인증사진을 올리며 누웨마루 거리, 스누피 가든, 사계 설콤바당 등 그가 방문한 도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고, 팬층을 중심으로 지민과 동일한 포즈의 인증샷이 개인 SNS 상에 포스팅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BTS 지

민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토존 방문 후 촬영한 사진을 비짓제주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소정의 문화 상품권이 증정된다.

공사는 BTS 지민이 방문했던 해당 장소 및 주변 관광 콘텐츠를 비짓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테마 콘텐츠로 소개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원도심 뿐만 아니라 누웨마루 거리 등 도내 명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시장엔 벌써 설 성수품 11일 서둘러 동문대군 청랑리농수산물시장이 설을 앞두고 조식급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t을 공급한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작년 국내선 점유율 1위

국내선 승객 645만명 수송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선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꺾고 국내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국내선에서 만 645만여명을 수송하며 국내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통계를 활용해 국적항공사의 지난해 국내선 여객 수송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은 역대 최대인 645만9000명(유입여객 기준)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32만5000명에 비해 200

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송객 수가 늘면서 제주항공의 국내선 여객수송 점유율도 2020년 17.2%에서 지난해 19.5%로 2.3%포인트(p) 증가했다.

국내선 탑승객 중 제주~김포·부산·청주·대구 등 제주기점 노선에 515만여명이 탑승해 전체의 79.8%를 차지했으며 김포~부산, 김포~여수 등 내륙노선에는 20.2%인 130만여명이 탑승했다. 이태윤기자

감굴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일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투) 1, 4년생	·궁천 변이(오하라베)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굴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신부리 형상과 푸리순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리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굴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국내개발 우수한 [우리품종]

감굴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내 품종

윈터프린스[황금향]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하례조생[궁천] ❖ 사라향[천혜향]

❖ 탐나는봉[한라봉] ❖ 제라몬[레몬]

과수농가 우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미니향(고당도)
오하라베(궁천변이)

가정원예(조경수)

2~4년생 하굴, 팔삭, 세미늘,
금굴, 망유자, 아마나스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굴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한라봉 1년생
- 미니향 2년생
- 제라몬2년생
- 하굴(아마나스)1~4년생
- 황금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레몬3년생
- 미니몬1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오하라베1와세(궁천변이) 1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히노야까지 3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탕자묘목

만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